‘죽으시다’의 비문법성에 대하여

－한글판 개역성경을 중심으로

변이주 · 권병로(군산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일반적인 죽음과 특별한 죽음
3. ‘죽으시다’의 비문법성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기독교가 국어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외다’ 하는 말로(이광수, 1971: 19), 최남선은 기독교가 ‘국어, 국문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갖게 해준 것은 진실로 영원한 감사를 받을 일’이라는 말로(최남선, 1974: 220) 기독교가 국어에 미친 영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개화기 우리말로 번역된 성서는 국어학적인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정길남, 1992: 173), 이른바 ‘그리스도 표기체’라는 독특한 한글 표기법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국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어를 이상하게 쓰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

일찍이 성경의 철자를 개정하라고 외친 이윤재 선생은 ‘성경의 철자는, 음

www.kci.go.kr

리상 불합한 것이 많으며, 또 학교 교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의 소년 청년의 안목에 비친 성경의 철자의 오류는 성경의 신성한 내용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이윤재, 2002: 136).

기독교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죽으시다'는 표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과, '죽으시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 일상적인 죽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과, 삼일 만에 부활했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것이지 목숨이 끊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죽다'는 표현은 다의어이며 '죽으시다'는 표현이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우리말 성서문헌을 언어학적인 면에서 분석 검토한 논문이나 저서들이 적지 않다. 특히 『개역성경』을 검토 분석한 것으로는 나채운(1971, 1990), 민영진(1979), 서정수(1985), 정길남(1991)들이 있다. 이들은 『개역성경』의 벗어난 우리말 표현들을 지적하고, 원전에 의거 현대 우리말 정서법에 알맞은 표현들을 제시하려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정길남, 1994: 82). 그런데 '죽으시다'의 비문법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다. 뿐만 아니라 번역 성경을 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들; 옥성득(1993), 김진(1996), 최성규(2006), 최선기(2008), 전무용(2011), 그 외 여러 논문을 살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죽으시다'는 표현이 분명 비문법적이며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진대 이에 대한 연구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죽음의 의미를 고찰한 후, 죽음을 나타내는 말을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살핀 다음, 일상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일지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어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 일반적인 죽음과 특별한 죽음

'죽음'을 일반적인 죽음과 특별한 죽음으로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www.kci.go.kr

죽음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과, 삼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자연법칙을 초월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표현을 차별화시키려는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죽으시다'와 같은 비문법적 용어를 만들어 쓰게 된 것이다[1)]

그러나 성경 원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차별적인 단어로 표현한 예가 없다. 신약성경 원문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타나토스(Θάνατος)가 쓰였는데, 약 120회 정도 나온다(이병철 편, 1986: 425).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류의 죽음을 구분하여 표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2)]. 더구나 한글 개역성경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죽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혼이 떠나시다(마 27:50)', '운명하시다(막 15:37, 눅 23:46)', '돌아가시니라(요 19:30)' 등으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죽으시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표현을 차별화시키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2.1. 일반적인 죽음

'죽음'의 사전적 풀이는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죽음의 동사형이 '죽다'인데 '죽다'의 대표적 의미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이며, 그에 따르는 응용의미는 적어도 열 가지 이상이나 된다(표준국어대사전).

①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
②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③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변하여 드러나지 아니하다.
④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

---

1) 본 연구자는 기독교개혁신보(355호. 2004, 7, 10)에 '죽으시다'의 비문법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죽다'를 완곡하게 표현하여 높이는 말로는 '돌아가시다'가 있음을 강조했다.

2) 신약성경에서 타나토스(Θάνατος)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 말로 '마 26:59, 27:1, 막 10:33, 14:55, 요 11:23, 12:33, 18:32, 롬 5:10, 6:3,4,5, 고전 11:26, 빌 2:8' 등에 쓰였으며, 인류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는 '마 8:25, 10:21, 16:28, 막 4:38, 9:1, 13:12, 눅 1:79, 2:26, 요 8:51,52, 롬 7:13, 고전 11:26, 고후 11:23, 빌 1:20, 2:30" 등에 나타나는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류의 죽음을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았다.

www.kci.go.kr

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지 못하고 잊히다.
⑥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⑦ 경기나 놀이 따위에서, 상대편에게 잡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⑧ 글이나 말 또는 어떤 현상의 효력 따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생동성을 잃다.
⑨ 상대편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상대편을 위협하는 말.
⑩ ((주로 '죽도록', '죽어라 (하고)', '죽자고' 따위의 꼴로 쓰여))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을 이르는 말.
⑪ 은어로, 감옥에 감을 이르는 말.

여기서 중요하게 살필 것은 '죽다'는 말은 다의어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다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심의미와 거기서 방사되는 응용의미들을 가진다(김종택 · 남성우 공저, 1997: 173).

'죽다'는 말이 다의어이므로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라도 언제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사망하다'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위에 열거한 사전풀이를 보더라도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 '상대편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상대편을 위협하는 말' 등과 같이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사망을 나타내는 표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순한 '죽음' 자체만을 뜻하는 어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정정덕, 1991: 249).

① 죽다, 죽음, 卒하다.
② 가다, 돌아가다, 올라가다, 떠나다.
③ 사거(死去), 사망(死亡), 화거(化去).
④ 절명(絶命), 숨이 막히다, 숨이 끊기다, 명(命)이 다하다.
⑤ 귀천(歸天), 귀원(歸元), 승천하다.
⑥ 지하에 가다, 황천 가다, 지옥에 가다.
⑦ 사자밥이 되다.
⑧ 별세(別世), 즉세(卽世), 세상 뜨다(떠나다, 이별하다).
⑨ 영원히 잠들다, 영원히 눈감다, 영면(永眠).
⑩ 머리 자르다, 목 자르다, 심장이 터지다(멈추다).

'①'은 단순히 죽음의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②'는 고유어로 죽음만을 뜻한다. '③'은 단순한 죽음을 한자어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④'는

www.kci.go.kr

육체적 삶의 근원인 생명력이 다하여 단순히 죽음을 뜻하고, '⑤'는 죽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영혼의 이동이 하늘에 도달하는 어휘로 죽음을 뜻한다. '⑥'은 반대로 영혼이 땅에 도달한다는 어휘로 단순한 죽음을 나타낸다. '⑧'은 영혼이 현세로부터 떠난다는 어휘로 죽음을 나타낸다. '⑨'는 죽음을 영원히 잠듦에 비유한 것으로 쓰였다. '⑩'은 육체의 어느 부분에 상해를 가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어휘들이다. 이들 모든 어휘들은 단순한 죽음만을 뜻하는 어휘들이다.

한편 '죽음'을 높여주는 어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정정덕: 257-258).

① 연세(**捐世**), 졸(**卒**)하다, 돌아가시다, 눈을 감으시다.
② 별세(**別世**).
③ 승하(**昇遐**), 국상(**國喪**).
④ 역책(**易策**).
⑤ 등선(**登仙**), 상선(**上仙**), 타계(**他界**).
⑥ 작고(**作故**).
⑦ 당고(**當故**).
⑧ 상(**喪**), 상사(**喪事**), 부모상(**父母喪**).
⑨ 붕(**崩**)하다.

'①'의 어휘들은 단순히 '죽음'의 높임의 뜻이 있다. '②'는 현실을 떠난다는 뜻으로 죽음을 약간 높이고 있다. '③'은 임금님이나 대통령의 죽음을, '④'는 학문과 덕행이 높은 분의 죽음을, '⑤'는 존귀한 분의 죽음을 뜻하나 원래 도교적 사상과 관련이 있다. '⑥'은 일반 사람의 죽음을 높이고, '⑦'은 부모님을, 그리고 '⑧'은 죽음 자체를 높이는 어휘로서 두루 객관적으로 쓰인다. '⑨'는 군주의 죽음을 높이어 쓰이는 어휘이나 오늘날 시대의 변천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휘들을 일람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www.kci.go.kr

[표1] 죽음을 높여주는 어휘

의미자질 / 어휘	죽음	높임	대상	일반인	임금왕	부모	학자	군주	중립
捐世	+	+	−	−	−	−	−	−	+
作故	+	+	+	+	−	−	−	−	−
昇遐	+	+	+	−	+	−	−	−	−
當故	+	+	+	−	−	+	−	−	−
易策	+	+	+	−	−	−	+	−	−
崩하다	+	+	+	−	−	−	−	+	−
喪	+	+	+	+	+	+	+	+	+
돌아가시다	+	+	+	+	+	+	+	+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을 높여주는 어휘로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두루 쓸 수 있는 말로 '喪'과 '돌아가시다'가 있다. 그런데 '喪'은 가족이나 친족에 기댄 표현으로서 [+관계성]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신분이나 관계 여하를 막론하고 두루 쓸 수 있는 말은 '돌아가시다'이다.

한 언어사회의 화자들은 왜 언어예절의 규칙을 습득하여 체화하는 것인가. 언어예절의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박금자 외 2인 공저: 6).

① 화자가 청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② 화·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언어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③ 예절이라고 인정된 기준에 맞는 틀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곧 사회적 갈등을 피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절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정착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어예절도 특정한 유형의 언어구조와 언어사용 양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오면서 정착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칙이 깨지면 사회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주체높임말이 따로 마련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일부의 풀이씨에도 '먹-'에 대하여 '잡수-'가, '아프-'에 대하여 '편찮-'이, '죽-'에 대하여 '돌아가-'가 주체에 대한 높임말로 따로 존재하고, 여기에

www.kci.go.kr

주체높임의 모든 월에 실현되는 '-시-'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길, 2001: 77).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해서는 '죽다'의 존칭어인 '돌아가시다'를 써야 한다.

2.2. 특별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특별한 죽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죽음이 인류의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뒤따랐다는 사실에 있다.

2.2.1.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범죄한 인생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에 말할 수 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은 물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고귀한 교훈을 남겼지만 스스로의 생명을 만민의 죗값으로 바친 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2.2.2.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인류 역사상 장사 지낸 바 되어 땅 속에 묻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을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속의 죽음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 그 죽음 자체가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혹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이 아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을 조작했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할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3].

---

3) 성경 마태복음 28:11-15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1 여자들이 갈제 파숫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www.kci.go.kr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죽음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서는 '죽으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글판개역성경[4] 중 『개정(1998)』에는 '죽으시-'를 어형으로 하여 쓰인 경우가 총 22회 나타나는데, '죽으사'가 3회, '죽으셨-'이 3회, '죽으시고'가 1회, '죽으신'이 3회, '죽으실'이 2회, '죽으심'이 10회 사용되었다. 그런데 1956년에 출간된 『개역』에서는 총 20회가 사용되었으며 1911년에 출간된 『구역』에서는 총 17회가 사용되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오히려 더 활발히 쓰였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예이다.

'죽으시-' 형의 어휘가 쓰인 구절을 성경별로 비교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죽으시-' 형의 어휘가 쓰인 성경구절 비교

	구역(1911)	개역(1956)	개정(1998)
죽으사	살전 5:10, 히 9:15	살전 5:10, 히 9:15, 벧전 3:18	살전 5:10, 히 9:15, 벧전 3:18
죽으셨-	롬 5:6, 갈 2:21	롬 5:6, 갈 2:21	롬 5:6, 갈 2:21, 살전 4:14
죽으시고	고전 15:3	고전 15:3	고전 15:3
죽으신	롬 14:15, 고전 8:11	롬 14:15, 고전 8:11	요 19:33, 롬 14:15, 고전 8:11
죽으실	요 11:52, 롬 8:34	요 11:52, 롬 8:34	요 11:52, 롬 8:34
죽으심	롬 5:8,10, 롬 6:5,10 고전 11:26, 고후 5:15, 빌 2:8, 3:10	롬 5:8,10, 롬 6:3,4,5, 10, 고전 11:26, 고후 5:15, 빌 2:8, 3:10	롬 5:8,10, 롬 6:3,4,5, 10, 고전 11:26, 고후 5:15, 빌 2:8, 3:10
총횟수	17회	20회	22회

'죽으시-'라는 어형의 사용에 있어서 『개정』이 『구역』보다 5회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 표현을 대조 비교해 보면 [표3]과 같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4) 『한글판개역성경전서』는 1911년 신구약합본(구역)이 출간된 이래 1938년의 1차 개정(성경개역)과 1956년의 2차 개정(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이어 1998년 3차 개정(개역개정)판을 냈는데, 1956년의 2차 개정판에서는 1차 개정판의 구철자를 새로운 철자로 바꾸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www.kci.go.kr

[표3] 『구역』과 『개정』의 '죽음'에 관한 표현 비교

	성경구절	구역(1911)	개정(1998)
1	요 19:33	임의 죽은 거슬 보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2	롬 6:3	그 죽음을 합ᄒᆞ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3	롬 6:4	그 사망을 합ᄒᆞ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	살전 4:14	죽엇다가 다시 사심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5	벧전 3:18	죄를 위ᄒᆞ야 고난을 밧으샤	죄를 위하여 죽으사

3. '죽으시다'의 비문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면서 특별한 죽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죽으시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죽음에 합당한 표현이라는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없다. '죽으시다'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다[5].

그런가하면 어떤 목회자는 선배 신학자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죽으시다'는 표현이 복음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 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또한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이다[6].

---

5) '죽으시다'의 비문법성에 대한 본 연구자의 지적에 대하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영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개혁신보 356호, 2004, 7,24.)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굳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므로 '돌아가셨다'는 완곡한 표현보다는 '죽으셨다'는 분명한 표현을 쓰는 줄 압니다. 죽음을 두고는 '저승으로 가다' '황천길로 가다' '서거하다' 등등여러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흙으로 돌아가다' '본향으로 돌아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표현들이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사람의 죽음에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음을 가리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부활을 가리켜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잔다'는 말씀도 다시 살아남을 전제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죽음을 두고는 우리의 어법에는 맞지 않으나 신학적으로 맞게 '죽으셨다'라고 말해야 하는 줄 압니다."

www.kci.go.kr

3.1. 어법적 관점

앞부분 <2.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사망'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죽으시다'라는 말이 쓰이는 법이 없다. '죽으시다'라는 표현이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선어말어미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어말어미 '-시-'는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변하지 않고 있다. 한 조사 결과 경어법 형식의 기능 부담량의 크기는 '-시->-님>-께서>댁'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시-'가 기능부담량의 크기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이정복, 2002: 81).

'-시-'는 존대해야 할 대상에 대해 각별히 친밀한 뜻을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퇴계는 조선의 뛰어난 성리학자이시다'고 했을 때 이는 퇴계의 후손이나 퇴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각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의미를 보인다(이희두, 2000: 46).

또한 '큰아버지께서 집에 간다'와 같이 주체경어법에서 '-시-'가 빠지면 주체존대자질은 크게 떨어지며 존대성과 호응도가 떨어져서 비문에 가깝게 된다(이규창, 1992: 136). 그런가하면 '시-'는 화자의 존귀한 인물에 대한 기대심리의 작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용례로

ㄱ. 아버님이 보인다.

---

6) 안해근은 개혁신보(357호, 2004, 8,14.)에서 박윤선의 설교를 예로 들어 '죽으시다'가 신학에 맞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바 설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뜨셔서 시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인데, '돌아가신 것인데' 하지 아니하고 '죽으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잘 양해하시는 줄 압니다. '돌아가셨는데' 하는 그 말보다 '죽으셨는데'란 말이 더 좋아요. 왜 그런고 하니 '죽었다'는 말이 우리 주님에게 대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고 그 영혼은 살아계시지마는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비참한 성격과 저주받은 성격,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까지 말씀했는데 그 고난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www.kci.go.kr

ㄴ. 아버님이 보이신다.

를 들 수 있다(이윤하, 2001: 136).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첫째, 주체를 높이는 모든 월에는 '-시-'가 통합되어야 하며, 일부의 임자씨 가운데 주체높임말이 따로 마련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일부의 풀이씨에도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 따로 있다. 곧 '밥'에 대하여 '진지'가, '이'에 대하여 '치아'가, '나이'에 대하여 '연세'가 높임말로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풀이씨에서도 '먹-'에 대하여 '잡수-'가, '아프-'에 대하여 '편찮-'이, '죽-'에 대하여 '돌아가-'가 주체에 대한 높임말로 따로 존재하고, 여기에 주체높임의 모든 월에 실현되는 '-시-'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한길: 77). 둘째, 주체대우법이 실현되는 문장에서도 대우할 대상인 주체와 주체대우법의 실현 요소 사이에 호응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체대우법이 정상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그 주체대우법의 실현 요소 사이의 호응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ㄱ.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ㄴ. *선생님께서 진지를 먹으신다.

(ㄴ)의 문장은 주어로 기능하는 주체인 '선생님'이 높여서 대우할 대상인데도 서술어로 높임동사 '잡수다'가 선택되지 않아서 높임의 주체대우법이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주체대우의 대상과 주체대우법의 실형요소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태영, 2007: 272-273). 이는 '죽다'의 존칭어가 왜 '죽으시다'가 아니라 '돌아가시다'인가를 확실하게 규명해 주는 설명이 된다.

한편 과거 검인정 및 국정문법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어 경어법의 실상을 연구한 서덕현(1996)에 따르면, 각 시기별로 용언의 어간이 동사인 경어로서 비교적 빈도수가 큰 것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1·2차 검인정(1949-1965~7)
잡수시-/잡숫-/자시-, 주무시-, 돌아가시-, 기침하(시)-

www.kci.go.kr

○ 제1차 통합문법(1966~8-1978)
① 중학교: 잡수시-, 주무시-, 돌아가사-,
② 고등학교: 잡수시-, 주무시-, 돌아가시-
○ 제2차 통일문법(1979-1984)
잡수-/잡수시-, 주무시-, 돌아가시-.
○ 통일문법 국정(1985-1990)
주무시-, 잡수시-, 돌아가시-.

검인정 및 국정문법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어 경어법에서 '죽다'의 존칭형으로 줄곧 '돌아가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먹다'나 '자다', '죽다' 등의 존칭어가 따로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한길(2002)에서는 "주체높임 풀이씨는 주체 안높임의 풀이씨 뿌리에 '-시-'가 결합되는 대신에 보충되는 낱말로 보지 않고, 주체높임 풀이씨와 '-시-'의 결합으로 다룬다. 곧 '계시다'는 '있- + -시-'의 보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의 주체높임말 + -시-'로 보며, '잡수시다'는 '먹+-시-'의 보충어가 아니라 '먹의 주체높임말 + -시-'로 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는 '죽-'의 높임말 '돌아가-'와 주체높임의 '-시-'가 결합된 복합 형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돌아가-'와 '-시-'가 동일인을 작용역으로 하는 월에서 '돌아가-' 대신에 안높임의 '죽-'이 쓰이더라도 적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형님께서 기가 죽으셨어'가 이에 해당되는바 이렇게 되면 '-시-'로써 주체를 높이되 주체의 행위 자체는 높이지 않게 되어, 높임의 정도에서 '-시-'로 주체를 높임과 아울러 '돌아가-'로 주체의 행위를 높인 '돌아가시-'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쓰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죽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생명 현상을 잃게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움직이던 물체의 움직임이 중지되는 것과 어떤 기운이 없어지는 것 또는 물체의 본래적인 특성이 없어지는 것 등에 대해서도 쓰인다. 죽을 정도로 힘을 다하는 것,

www.kci.go.kr

죽을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임홍빈 편저, 1996: 580).

'죽다'는 금기어에 속하므로 '승천, 승하, 귀천, 타계, 운명' 등의 우아한 표현으로 바꾸어 쓰며(박금자 외 2인 공저, 2004: 72), '죽다' 대신 '돌아가다'는 완곡어를 쓴다.

3.1.2. 돌아가다

원래는 '있었던 자리로 다시 간다'는 뜻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사람이 본래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간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은'죽다'를 완곡하게 표현하여 높이는 말로서 사람에 대해서만 쓰이는데 그것도 윗사람에 대해서만 쓰인다. '죽다'가 가지는, 어떤 기운이 약화된 것을 뜻하는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김달호, 1980). '돌아가시다'와 같이 '시-'를 써야 온전히 높이게 된다. '죽으시-'라는 어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익섭외 2인, 1997: 253).

3.1.3. 사망하다

사람의 생명 현상이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만 쓰인다. 물체가 가진 어떤 특징에 대해서 쓰이는 일이 없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나 '아주 심한 정도'의 뜻을 나타낼 수 없다. 사람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가리키므로 공식적인 보고나 기록에 흔히 쓰인다. 이보다 다소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 '돌아가다, 별세하다'이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높일 때는 흔히 '돌아가시다'를 쓰며 위대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서거하다'를, 임금에 대해서는'붕어(崩御)하다'를 쓴다(이익섭외 2인, 1997: 58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다'는 다의어일 뿐 아니라 '죽으시-'라는 어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다」와 「사망하다」동사는 존칭의 경우에는 쓰이지 않으므로(배해수, 1992: 340) '죽으시다'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이다.

'죽으시-'라는 어형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면 '아버님은 풀이 죽으셨다'와 같이 목숨이 끊어진 것과 상관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뿐이다. 그러므로 '죽으시다'가 생명현상이 중지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이라는 김

www.kci.go.kr

영제의 주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을 상기시켜 준다는 박윤선, 안해근 등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박윤선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저주 받은 죽음'과 연관시킬 경우 '죽으시다'는 표현은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저주'와 존칭 어미 '-시-'와는 호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돌아가다'는 [+사람], [+사망], [+존칭]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말이다.

3.2. 신학적 관점

이상 세 사람의 견해를 종합하면 '죽으시다'가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압축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죽으시다'가 '사망'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냄은 물론 부활과 연계된 표현이라는 것. 둘째, '죽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준다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 재론하거니와 '죽으시다'는 표현은 ① 다의어이므로 꼭 '사망'의 뜻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② '풀이 죽으시다'처럼 '사망'과는 상관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용어이다. 반면 '돌아가다'는 표현은 어법에 맞을 뿐 아니라 '재림'과 연계해서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돌아가다'는 '다시 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신학(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부합된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불합리한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용어란 한 전문 분야에 속하는 일반 개념에 대한 언어 명칭인데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국립국어원, 2007: 13-15).

① 용어의 일의성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지칭해야 하며 또한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명칭으로 불려야 한다.

② 용어의 투명성과 명시성
용어는 개념의 반영이다. 용어를 통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유출할 수 있을 만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www.kci.go.kr

③ 용어의 간결성
개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도한 정보를 명칭에 담지 말아야 한다.

④ 용어의 일관성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는 일관한 방식으로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동일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고유어로 만든 전문어' 중에는 특히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지나친 노력 때문에 어색한 우리말이 만들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인간나라'를 '사람나라'로 바꾼 것(개역개정, 단 5:2)이라든지, '적신'을 '알몸'으로 바꾼 것(개역개정, 욥 1:21)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 용어에 대한 인식(이해) 부족으로 비문이 속출하게 되는데, '죽으시다'가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4. 나가는 말

'죽으시다'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의 죽음을 나타낼 때만 쓰이는 '돌아가다'나 '사망하다'로 표현하면 이상하고, '죽으시다'로 표현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도 '죽음'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반인의 죽음을 차별하여 표현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죽으시-'라는 어형은 없으며, '죽다'는 말이 다의어이므로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라도 언제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사망하다'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돌아가-'와 '-시-'가 동일인을 작용역으로 하는 월에서 '돌아가-' 대신에 안높임의 '죽-'이 쓰이더라도 적격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형님께서 기가 죽으셨어'가 이에 해당된다. 이 또한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www.kci.go.kr

나타내는 표현으로 '죽으시다'는 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우리말이니까 쉽다'는 인식 때문에 문법이나 어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 교회는 '성경 문자 무오설'에 바탕을 둔 성경 절대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개역성경』에서 단어 한 개라도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경향이 있다(장소원 외 3인공저, 2005: 188). 그러나 이는 한국 기독교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우리말을 바르게 쓸 것을 촉구하며 잘못을 지적했지만 한국교회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신학계의 유수한 교수가 '죽으시다는 말이 우리 어법에는 맞지 않으나 신학에는 맞는 말'이라는 등의 잘못된 견해를 발표하는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문법과 어법도 '법'이다. 법은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질서는 구성원 전체를 구속한다. 따라서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은 신학에도 맞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들이 한국교회에서 분별없이 쓰이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말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교육의 부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니 한국교회는 이 점에 유의하여 용어를 바르게 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종택・남성우 공저(1997),『국어의미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김태영(2007), 한국어 대우법, 도서출판 역락.

박금자 외 2인 공저(2004),『언어예절』,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배해수(1992),『국어 내용 연구』, 국학자료원.

서덕현(1996),『경어법과 국어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심재기・채 완 공편(2005),『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경자(2000),「동사 '죽다'의 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李圭昌(1992),『國語尊稱法論』, 集文堂.

이윤재(2002),『나라사랑』 제5권, 외솔회.

李潤夏(2001), 現代國語의 待遇法 硏究, 도서출판 역락.

이익섭외 2인(1997),『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李義斗(2000),『國語 尊稱形態의 變化過程硏究』, 보고사.

이정복(2002),『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보고사.

장소원 외 3인공저(2005),『생활 속의 언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길남(1992),『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정길남(1994),『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정정덕(1991),「'죽음'을 뜻하는 어휘의 구조」,『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한 길(2002),『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2011.

기독교개혁신보 355호(2004, 7, 10).

김달호,『바른말백과』, 경운출판사, 1980.

대한성서공회,『성경전서-개역-』, 1956.

동아출판사,『우리말 돋움사전』, 1995.

미국셩셔공회,『셩경젼셔』, 1911.

성서원,『성경전서-개역개정판-』, 2001.

이광수,「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이광수전집』10, 삼중당, 1971.

www.kci.go.kr

이병철 편, 『성서원어대전5』, 한국성서연구원, 1986.

임홍빈 편저, 『뉘앙스풀이를 겸한 우리말사전』, 아카데미하우스, 1996.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三星文化財團, 1974.

www.kci.go.kr

【국문초록】

초대 한국 교회는 우리말, 우리글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국어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국 기독교에서 문법이나 의미론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죽으시다'도 그 중에 하나이다.

성경 원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차별적인 단어로 표현한 예가 없으며, '죽으시다'는, 생명이 끊어질 때 쓰는 '죽다'의 존칭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죽으시다'는 표현이 신학에 맞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합리화시키고 있다. '죽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이나 어법에 맞지 않으면서 신학에도 맞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말에서 몇몇 용어, 즉 '말하다, 먹다, 자다, 죽다' 등은 높임말이 따로 있어서 '말씀하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등으로 표현한다. 혹시 '죽으시-'형이 쓰이더라도 적격한 경우가 있는데 '형님께서 기가 죽으셨어'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말을 바로 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 죽으시다, 돌아가다, 사망하다, 대속의 죽음, 부활

www.kci.go.kr

【Abstracts】

about ungrammartical peculiarity of 'jugeusida' - Focusing on the Hangeul Revised Holy Bible

Pyon, Yi-Joo · Kwon, Pyong-Ro

Early church of Korea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 Hangeul. But todays church of Korea can't help to development of the Hangeul.

We can find a lot of error - grammatical and sementic - in the Hangeul Holy Bible. The expression of 'jugeusida' is one of the error.

All of Korea christian misunderstand that the expression of 'jugeusida' is indisputably correct. In Korea, the verb of 'malhada(speak), meokda(eat), juda(give), jukda(death)' has a word of honor. 'malhada= malsseumhasida, meokda= japsusida, juda= drida, jukda= doragasida'.

Korea church has to use a correct term.

Key words : jugeusida, doragasida, samanghada, The death of atonement, resurrection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